

스트레이 키즈, '멧 갈라'서 인종차별 피해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미국 사고 파티계의 중심으로 통하는 '멧 갈라(Met gala)'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트레이 키즈는 6일 뉴욕에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상연구소가연 '2024 멧 갈라'에 타미 힐피거 글로벌 앰버서더 자격으로 참석했다. K팝 그룹이 단체로 멧 갈라에 참석하는 것은 스트레이 키즈가 처음이다.

올해 멧 갈라 드레스 코드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 다시 깨우는 패션'이었다. 스트레이 키즈 외에 블랙핑크의 제니, 한국계 미국 배우 스티븐 연을 비롯 쥘리아, 아리나 그란테 등 톱스타들이 출몰했다.



▲ 그룹 스트레이 키즈, 사진=텐아시아

스트레이 키즈는 이날 레드와 블랙, 화이트로 의상을 맞춰 입고 등장해 남다른 카리스마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문제는 현장 영상이 공개되면서부터다. 일부 파파라치는 스트레이 키즈에게 "키가 작으니 점프해 봐라", "로봇 같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감정 없는 얼굴을 본 적이 없다"라고 외쳤다.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무례한 발언에 팬들은 "무례하다", "인종차별이다", "미개하다", "다른 스타들에게는 멋있다고 하면서 스트레이 키즈에게만 부당한 발언을 했다"라며 분노하고 있다. 인종차별 발언을 한 한 파파라치는 논란이 커지자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뉴진스 '버블검', 유튜브 주간 인기곡 1위

걸그룹 뉴진스의 신곡 '버블검' (Bubble Gum)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각종 주간 차트에서 정상에 올랐다.

6일 소속사 어도어에 따르면 '버블검' 뮤직비디오는 한국 주간 인기 뮤직비디오와 인기곡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또 유튜브 글로벌 주간 인기 뮤직비디오와 인기곡 차트에서도 각각 2위, 5위를 기록했다.

'버블검'은 오는 24일 발매를 앞둔 새 더블 싱글 '하우스 스위트' (How Sweet)의 수록곡이다. 뉴진스는 정식 음원 공개 전 뮤직비디오만 전격 선공개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버블검' 뮤직비디오는 여느 K팝 그룹처럼 퍼포먼스 중심이 아닌 서정적인 영상미와 자연스러운 스토리텔링이 특징이다.

특히 캠코더, 비디오(VHS) 테이프, 풍선껌, 구형 선풍기, 구슬 등 유년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품들은 복고적이면서도 세련된 독특한 질감을 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버블검'은 피리 소리와 신시사이저 사운드 등을 활용



▲ 걸그룹 뉴진스, 사진=어도어

해 시원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멤버들의 청아한 음색이 더해져 듣기 편하다는 평가이다.

미국 매체 업록스(UPROXX)는 "다가오는 여름날에 완벽한 사운드 트랙이 될 경쾌한 팝"이라고 평했다.

또다른 미국 매체 나일론(NYLON)은 "뮤직비디오는 통통 튀는 팝 트랙만큼이나 달콤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전했다.

미네소타주, 암표 막는 '스위프트법' 제정



▲ 테일러 스위프트, 사진=AP연합뉴스

미국 미네소타주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출생 연도와 앨범 제목을 딴 콘서트 티켓 재판 매 규제 법안을 제정했다.

팀 윌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7일 스위프트의 인기 앨범 이름이자 스위프트의 출생 연도 숫자 '1989'를 붙인 법안 '하우스 파일 1989'에 서명했다. 언론들은 이 법을 '테일러 스위프트법'으로 지칭했다.

윌즈 주지사는 이 법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재판매자(리셀러)가 티켓을 모두 낙찰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소속 주의원 켈리 몰러는 2022년 스위프트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려다 판매 사이트가 다운되는 바람에 티켓을 사지 못한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당시 전문 리셀러들이 스위프트 콘서트의 티켓을 대량 사재기하기 위해 컴퓨터 '봇'을 돌려 동시 접속하면서 사이트가 수시로 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 티켓 재판매 사이트에서는 이 콘서트 티켓 가격이 3만 5000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재판매 사이트에서 인기 있는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티켓의 경우 게시된 액면가보다 10배로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하우스 파일 1989'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베네딕트 파인 아트 Photography Gallery

— 사진 클래스 회원 모집 중입니다. —



베네딕트 양 작가

미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전문으로 촬영해오고 있으며 약 4,000여점의 풍경 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예술대학(AIB)에서 순수 예술 사진을 전공했으며, 다수 사진공모전 입상과 사진 강사, 공모전 심사 위원 등 풍부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213.446.7476 | 3500 W. 6th St. #304, Los Angeles CA 90020